

##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 그 취약점과 도전에 관한 분석: 버마의 전망

아웅 투 네인  
버마 새사회민주당 부의장

여러분,

버마의 민주주의 투쟁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버마민중의 관심을 아시아 민주주의 포럼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다. 18년 전 이 때에 한국에서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운동이 있었다. 그 다음해인 1988년에 비슷한 대중적 민주주의의 항쟁이 버마에서 일어났다. 버마민중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버마에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투쟁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동안, 버마민중은 아직도 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버마민주주의 운동의 배경을 간단히 보자. 1962년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권력을 찬탈했다. 그리고 버마에 “사회주의를 향한 버마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일당 정당제를 채택했다. 장군은 국가의 지배정당인 버마 사회주의 프로그램당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의 당수가 되었다. 실제로, 자원이 풍부하고 전도유망한 국가가 고립정책과 사회주의 체제의 잘못된 관리에 의해서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버마는 26년간의 군사독재 이후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8년 8월에, 전체 국민이 일당독재지배에 대항하는 저항을 하며 민주주의, 자유와 다수 정당제에 의한 선거를 요구했다. 1988년 버마에는 짧은 민주주의 여름이 왔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꿈은 잔인한 탄압과 또 다른 군의 쿠데타에 의해서 끝이 났다. 나는 1988년에

민주주의 항쟁을 이끌었던 학생활동가의 한명이었다. 그리고 이후 1988년에 타이-버마 국경으로 도망쳤고 어느새 17년이 지났다. 그러나 버마를 위한 민주주의는 여전히 먼 꿈이다. 군부체제는 후에 다당제 일반선거를 1990년에 실시했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결과를 거부했다. 친민주주의 정당인 NLD가 의회의 의석 82%을 획득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부한 것이다.

버마의 민주주의 여름이 17년이 지난 지금, 군부는 여전히 그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1,300명에 달하는 정치적 활동가들이 훈타의 악명높은 감옥에 장기 투옥되어 있다. 1990년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당선자들이 감옥에 보내지거나 강제로 망명되어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제되어졌다. 일부 소수민족의 무장그룹은 훈타와 정전협약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약 100,000명의 난민들이 여전히 이웃나라에 남아 있다. 그리고 빈사상태의 버마경제 때문에 백만명의 이주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군은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주요한 핵심부분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년간의 군부의 개입동안 어떠한 정치적인 진보가 없었다. 버마는 여전히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압제국으로 남아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아시아민주주의의 포럼은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취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아웅산 수지가 버마 민주주의운동에서 가장 유명하고 특출난 인물이지만, 그녀의 당, 제 1 야당은 버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많은 황금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정치적인 정체는 군사정권이 대화요구를 거부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군부를 역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권에서 물러나게 한 후 대화테이블에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버마에서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공통적인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 우리의 취약점

만약 버마민주주의 운동의 3가지 취약점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운동이 아직도 공통적인 전략이 없다. 그런 가운데 종종 비실용적인 전략을 추진해 왔다. 모든 '전략'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고, 모든 그들의 이해관계가 이 공통적인 전략이라는 커다란 바구니에 담겨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가 쉽지 않다. 버마인들은 다른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운동을 덜 통합적이고, 분파적으로, 과편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을 매우 다양한 모퉁이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일부는, 아니 아마 우리 대부분은 사소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운동의) 통일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 속에서 통일적으로 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적인 그룹 사이도 기능적인 통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 전망하에서 일하고 있다. “분리 통치”라는 여전히 군사정권의 교묘한 통치 전략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앞으로의 도전

나는 버마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의 투쟁 앞에 놓인 도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버마군이 문제의 부분이며, 마찬가지로 해결의 부분이기 때문에 군의 속성과 관심을 이해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식민지 권력과 달리, 군은 갈 곳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1990년에 선출한 대표는 군리더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개인적, 제도적인 이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운동의 일부 사람들은 타협을 취약함의 표시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정권의 무자비한 과거의 행위들을 용서하자고 납득시키는 것이 어렵다.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은 우리가 투쟁중이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적 화해를 성취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명한 인물인 아웅산 수지 여사 외에는, 운동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 버마인과 비버마인의 분열은 극복되어야 하고, 1948년 독립 이후에 시작된 오랜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분리통치를 종식시키고 버마에서 영구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역시 왜 민주주의가 버마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버마를 장기적으로 다룬 학술자료들 중의 하나에 의하면, 버마의 시민사회는 1962년 이후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죽음을 당해왔다. 그리고 두려움은 여전히 군부정권을 연장시키는 데 기능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 전통이 1950년대에 있었던 짧은 민주주의 기간 동안에 버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듯하다. 국가가 독립 직후에 시민전쟁으로 화염에 휩싸였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권이 부패의 전통, 백마를 탄 지도자에 대한 공통적인 의존성으로 인하여 국가에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도자 숭배집단을 만들었다. 특히 투옥된 아웅산 수지 여사를 버마와 수동적인 민중을 구할 지도자로서 숭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이러한 3가지 외에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는 탄압의 잔인성, 국내와 국외 망명지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취약한 시민사회, 만연한 빈곤, 마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연결의 취약함이다.

다른 민주사회의 친구들은 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버마가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민주주의가 버마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 그렇지만 버마인들은 다른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경험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다른 나라가 그들의 전환기에 투쟁해왔는가를 배워야 한다. 아시아 민주주의 포럼으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힘에 의해서 격려되고 활력을 많이 받는다. 앞으로는 버마민주주의자에 대한 당신들의 경험과 전술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버마와의 연대를 희망한다. 국제적인 연대운동은 버마민주주의운동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 아세안, 일본과 한국같은 지역국가는 군사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 나는 아웅산 수지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버마의 해방을 위하여 당신의 해방을 활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owards Promoting & Deepening Asian Democracy  
– Analysis on its Weakness and Challenges':  
A Burmese Perspective

Aung Thu Nyein

Democratic Party for a New Society, Vice-President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having a chance to share concerns of the Burmese people on their democracy struggle and Asian democracy as a whole, in the occasion of this Asia Democracy Forum. Eighteen years ago, in this week, there was a popular democracy movement in South Korea and it could finally drive the country towards democracy and a change for betterment of South Korean people. Next year in 1988, similar popular democracy uprising was occurred in Burma and the Burmese called for democracy and freedom. Unluckily, democracy is long overdue in Burma and we are, today, see ourselves still in the struggle. While peoples of other countries are thinking consolidating its democracy, the Burmese people are yet to think on democratization.

Let's me brief the background of Burmese democracy movement.

The military took over power from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in 1962 and adopted one party system in Burma, claiming as "Burmese way to socialism". The generals became the leaders of the country ruling party,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Actually, the resources-rich and promising country went down to the road of

poverty, by its isolationist policies and mismanagement of the socialist regime. Burma became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26 years of military rule. In 1988 August, the whole country revolted against one party rule and called for democracy, freedom and multi-party elections. There was a brief democracy summer for Burma in 1988. However, the dream for democracy was ended up by brutal crackdown and another military coup d'etat. I was one of the student activists who lead the democracy uprising in 1988, and later I fled to Thai-Burma border in 1988. It has been 17 years in movement now, but democracy for Burma is still a far dream. The military regime later hold a multi-party general election in 1990, but again the regime neglected to honor the election results after the pro-democracy party,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on a landslide victory, 82% of seats in parliament.

Today, 17 years after democracy summer in Burma, the military still continue its rule in Burma and 1,300 political activists are incarcerating their lives with lengthy imprisonments in junta's infamous prisons. MP-elects from 1990 elections have been either sent in jails, or forced to exile, or forced to resign from their positions throughout these years. Some ethnic armed groups have agreed ceasefire with the junta, however approximately 100,000 refugees are still remaining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million of immigrants are working illegally in other countries because of country's moribund economy. The military have seized a tight grip not only on power but also monopolized the major pie of country's economy. Finally, there has been no political progress of any kind in the intervening 16 years. Burma is yet a big pocket of oppression in today Asia and this Asia Democracy Forum should not miss out the fact.

We have to commit we, the democrats, are not free of weaknesses. Even though Daw Aung San Suu Kyi is the most popular and prominent figure of Burma democracy movement, her party, the main opposition party had missed many golden opportunities to make change in Burma and political deadlock is going on since the military denies its call for a dialogue. We, the democrats, can contain the military, but yet to push them from the throne or to a dialogue table. It is not secret we are still weak in unity and lack of a common strategy how to end military rule in Burma.

We are not free of weaknesses.

If you would ask me, what are the three weaknesses of Burma democracy movement, the most important are:

- The movement still lacks a common strategy--where we have been pushing through with impractical strategy for sometimes and still hard to convince all "the strategy" is of their own and their interests are in this big basket. The Burmese should learn experiences from other democracy movement and how other people have passed through their transition to democracy.

- This makes the movement less unified, splintered, fractionized and driving our efforts to various corners. Some, may be most of us are working in projects of petty self-interest. Unity is most frequently-heard and most demanding calls, but yet still hard to implement with unity in diversity and functional unity among our democratic group.

- Some of us are still working with short-term vision, rather than a long-term aim. "Divide and rule" has been still working in the manipulating hands of the military and we couldn't make escape from the traps, even we know well from the past experiences.

#### Challenges Ahead

I foresee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ahead of our struggle to bring democracy in Burma, but the most important three are:

- The movement to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interests of the army, since the Burmese army is part of the problem and part of the solution as well. Unlike colonial power, the army has nowhere to go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representatives we elected in 1990 must understand how to deal with the military leaders and what would be their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terests. However, some peoples in the movement see compromise is a sign of weakness and it is hard to convince to forgive the ruthless past of the military rule.

- Another challenge ahead is to realize how we can build for national reconciliation even during the struggle. Apart from our renowned figure Daw Aung San Suu Kyi, there are no representative leaders in the movement. Burman, non-Burman divide must be tackled and must efforts need to resolve for prolong and bloody ethnic conflict, began since its days of independence in 1948. It is the only way to end divide and rule tactics and for a ever lasting peace in Burma.

- Structural problems are also vital to observe why democracy is taking so long to take roots in Burma. According to one of long time Burma academics, civil society in Burma was systematically killed since 1962 and constraints by fear is still a main factor working to lengthy military rule. Tradition of democracy was unlikely rooted in Burma during a brief democracy rule in 1950s, since the country had flamed with civil war immediately

after its independence and authoritarian rule has seeded the country with a tradition of corruption and common reliance upon leader on the white horse. These structural problems breed leadership cult, especially upon our imprisoned leader Daw Aung San Suu Kyi to save Burma and people waiting in passivity.

There are many challenges waiting ahead, other than these three, on the road to democracy. Some like, severity of the oppression,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working inside and exile, weak civil societies, rampant poverty and finally a weak connection to globalization.

What could the others, our friends from democratic societies, do for Burma?

I strongly believe, Burma must be changed and democracy must be prevailing in Burma. However the Burmese should learn experiences from other democracy movement and how other countries have strived during their transition. From this Asia Democracy Forum, I think I have learn a lot and I am much encouraged and enthused by momentum of democracy in our Asia region. Here by, I would like to ask to friends to share your experiences and tactics to our Burmese democrats in future. Additionally, I hope your solidarity with Burma.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can contribute a lot to Burma democracy movement and regional countries like India, ASEAN, Japan and South Korea have much important role to play for political pressure against the military and to block its financial flows. Finally, I want to call your support to the Burmese democracy movement and here I would like to quote from a speech of Daw Aung San Suu Kyi, once she said, "Please use your liberty to promote liberty in Burma." Thank you.

End.